

# welcron<sup>+</sup>*in*

2014 SUMMER Vol.06 웰크론그룹 사보 '웰크론인'



**WELCRON**

- (주)웰크론
- (주)웰크론강원
- (주)웰크론한텍
- (주)웰크론헬스케어
- (주)웰크론글로벌비나
- (주)엘림하이드로

# Healing Summer

여름이 불쑥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다사다난' 했던 2014년 봄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도 슬픔이 젖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국은 또다시 선거의 바람이 휩쓸고  
이념의 논쟁과 좌우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월드컵 축구는  
'의리축구' 논란을 빚으며 실패작이라는 자책성 평가로 마감되었습니다.  
동북아의 정세는 더욱 혼란스러워 졌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합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여름은 푸르른 얼굴로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여름에는 우리 모두에게 휴식 그리고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 여름 휴가에는 그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친구, 연인과 함께 진정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웰크론인 여러분, 우리 모두 올여름 건강한 휴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14년 하반기를 힘차게 맞이합시다.



# welcron<sup>+</sup>in

2014 SUMMER Vol.06

웰크론그룹 사보 '웰크론인'



### 표지 이야기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당신의 모습에서 진정한 웰크론인의 진심과 열정을 느낍니다. 기업의 성장 그 중심에는 언제나 기본을 지켜나가는 이들의 맘이 숨어 있습니다. (주)웰크론강원 생산팀 윤정환 사원

발행일 2014년 7월 7일(통권 제6호)  
발행인 이영규  
발행처 웰크론그룹 기획조정실 홍보팀(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2)  
tel. 02.2107.6742 / fax. 02.539.8115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하우두 그래픽  
tel. 02.2688.2304  
인쇄 에듀&P  
tel. 02.2274.2588

## contents

### Welcron Story

- 04 **Special Theme**  
성장을 가능케하는 근원적 경쟁력, 기본의 힘
- 08 **Theme Talk**  
책임과 권한, 본분을 다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라
- 10 **Zoom in Story**  
신재생에너지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다
- 14 **찰칵! 현장 스케치 01**  
웰크론그룹 2014 간부2과정 워크숍 현장스케치
- 16 **찰칵! 현장 스케치 02**  
철저한 위기대응 훈련으로 안전 경영을 실천하다
- 18 **세계를 가다**  
웰크론 ISSA 암스테르담 전시회 참가 현장속으로
- 20 **우리는 파트너**  
석원약품, 서울동원팜 김포고촌물류센터 신축공사

### Welcron People

- 24 **파워인터뷰**  
(주)엘림하이드로 박용수 사장
- 26 **웰컴! 웰크론**  
웰크론글로벌비즈니스 직원들의 한국방문기
- 30 **웰크론인 무한도전**  
웰크론그룹 공채 2기 신입사원 청계산 등반
- 34 **생생 가족 여행**  
웰크론강원 경영지원본부 전창락 부장 가족
- 38 **행복을 파는 가게**  
SESA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 Welcron Life

- 40 **Health & Living**  
신제품 예지보감·예지친사 팬터형 기저귀
- 42 **Money & Trend**  
모바일 소매치기, 스미싱 예방법
- 44 **Travel & View**  
연둣빛 신록으로 빛나는 인제 아침가리골

46 News

50 빨간우체통



한근태 소장

## 기본에 충실하라 성장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 경쟁력, 기본의 힘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한다. 기초가 부실하면 위를 아무리 잘 쌓아 올려도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 사람도 그렇다. 인물이 번듯하고 기량이 길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기본이 바로 서야 성공할 수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본이란 것은 대체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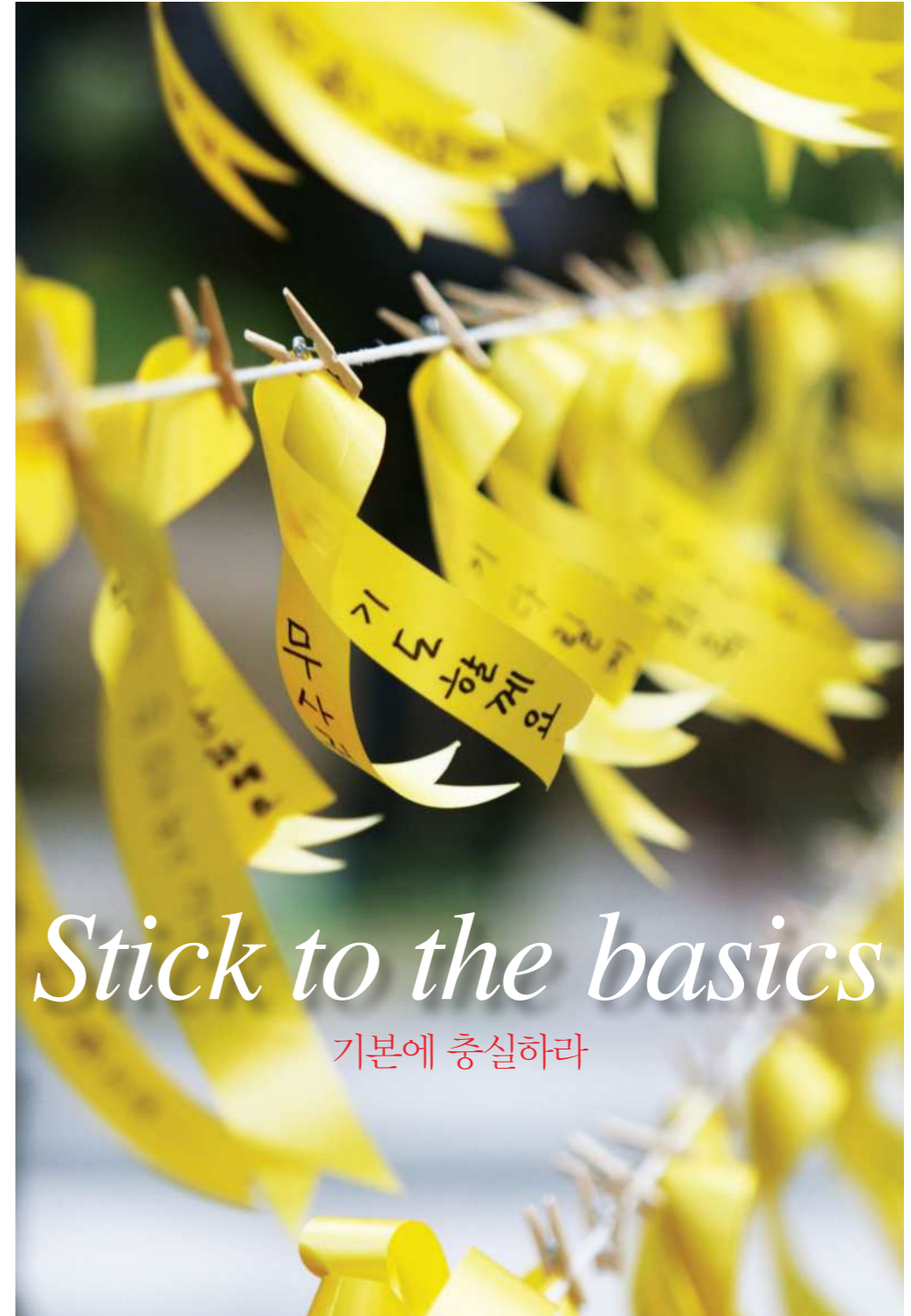
### 눈에 보이는 기본을 직시하라

예전 자동차 회사에 다닐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사장님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나를 공장으로 발령을 냈다. 불량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현장에 간 난 깜짝 놀랐다. 노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많았다. 지저분하고 긴장감이 없었다. 운동을 구겨 신은 사람 심지어 슬리퍼를 신고 일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이런 공장에서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난 정리정돈, 시간 지키기, 운동화 제대로 신기, 근무 중 유동 인력 최소화하기 등을 강조했고 직원들은 우리가 애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간섭한다며 대놓고 반발을 했다. 특히 운동화 구겨 신는 문제를 갖고 논쟁을 벌였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다. "하루 종일 근무하면 신발에 땀이 차서 불편합니다. 무좀도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내 논리는 이랬다. "전쟁터 나갈 때 군화 구겨 신고 나갑니까? 그 자체가 정신 상태를 나타냅니다. 난 양보 못 합니다." 그리고 세계 밀어 부쳤다. 얼마 후 그 공장은 불량률도 감소하며 정상화되어갔다.

### 정리정돈은 기본을 지키는 첫걸음

첫째, 정리정돈이다. 전화를 영망으로 받고,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공장이 더러운데 실적이 좋은 회사가 있을까? 있을 수 없다. 기본 중 기본은 정리정돈이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버릴 건 버리고 치울 건 치우는 것이다. 깨끗한 기업 중 망하는 기업 또한 없다.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일본전산의 나가모리 사장은 수많은 회사를 M&A 하면서 성장했다. 그는 흡수 합병한 후 단 한 가지 지시만을 했다. "자발적으로 10분 일찍 출근해 회사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 그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현관 앞을 밝고 깨끗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복이 들어온다. 자식을 성공시키고 싶은가? 정리 정돈하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자신이 어지러운 것은 자신이 치우게끔 훈련시키면 된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은 단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청소를 하면서 우리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다.



*Stick to the basics*  
기본에 충실하라

## 자율성과 구분되어야 할 시간 지키기

둘째,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다. 한때 엄청난 투자를 받아 각광을 받던 모 벤처회사에서 강의 를 한 적이 있다. 강의시간에 모인 사람은 반이 되지 않았다. 거의 한 시간에 걸쳐 찢끔찢끔 오 는 통에 분위기가 엉망이었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 제일 힘든 것이 제시간 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도대체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보통 30분 정도 늦습니다.” 이 회사는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아무 때나 오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걸 자율성으로 착 각하는 것 같았다. 도대체 기본이 되지 않은 회사였고 그다음 해 망했다. 이런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역시 이상한 일이다. 난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한 번 은 참아도 두 번 이상 늦으면 그 사람과는 끝이다.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과 같 이 일을 하는 건 낭비이기 때문이다. 난 약속시간에 늘 15분 정도 일찍 가는 걸 원칙으로 한다. 강의는 한 시간 전에 간다. 미리 가야 여유가 있다. 미리 가 보아야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직원들 표정은 어떤지,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할지 생각할 수 있다. 또 무슨 일이 생겨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다. 시간 잘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셋째, 미리미리 하는 것이다. 하수들은 늘 일이 많이 생긴다. 이유와 핑계가 많다. 매번 응급실에 실려가고, 오다가 차가 고 장 나고, 삼촌이 쓰러지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 고수들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 정말 중요한 일들은 다 급하 지가 않다. 건강 문제도 그렇고, 지식을 쌓는 일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무식해지지 않는 다. 하지만 일단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손을 쓸 수 없다. 핵심은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찍감치 출발하면 된다. 잔병치레를 안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운동을 하고 음식을 적게 먹고 자기 몸에 신경을 쓰면 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련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찾아다니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해야 한다. 이 또한 기본이다.

## 고수의 비법은 기본을 지키는 꼼꼼함이다

넷째, 디테일에 강해야 한다. 고수들은 치밀하고 꼼꼼하다. 하수들은 대충 어영부영 얼렁뚱땅 일을 한다. 무슨 일이든 지극 정성으로 해야 한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종교행사를 하듯 해야 한다. 마이다스IT는 구조해석 소프트웨어 1위의 회사이다. 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의 이형우 사장은 신입사원 시절 복사왕이란 별명을 가졌다. 워낙 복사를 잘 했기 때문이다. 당시 복사는 종이 가 자꾸 걸려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그는 업체를 찾아가 답판을 지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복사를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부서 전반의 현황을 알 수 있었다. 그게 기초가 되어 구조해석 분야의 고수가 되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메모의 중요성이다. 이병철, 윤형주, 록펠러, 링컨, 슈베르트,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 찰스 다윈의 공통점은 모두 메모광이란 점이다. 적는 자가 생존한다. 메모를 하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가계부를 쓴다는 것이다. 가계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하루를 반성하고 또 다른 날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체가 하나의 경건한 의식이다.

기본에 충실한 웰크론그룹이 되기 위한 토론  
**책임과 권한, 본분을 다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라**



웰크론그룹이 최근 8개 계열사 체제로 들어서면서 어엿한 그룹사의 면모를 갖췄다. 하지만 현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표면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적인 성장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중요한 시기에 웰크론그룹 3명의 임원이 모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본인의 위치에 맞는 책임과 권한**

최근 베스트셀러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라는 책이 인기다. 이 책에 따르면 평생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48가지 공통점으로 바로 '기본의 힘'을 꼽고 있다. 유창한 영어실력보다는 승강기에서 남을 먼저 내리게 하는 배려나, 퇴근하기 전 약 5분 동안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는 것이 업무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다.

이번 토론의 주제 역시 기본에 충실한 기업, 즉 '기본의 힘'이 주요 주제가 되었다. 토론에 참여한 웰크론그룹 기획조정실장 이윤무 상무는 "책임이 우선되고 권한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룹사 일부 중간 간부들의 경우 그러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책임과 권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회사가 외적 성장을 이루면서 내부 임직원의 역량이 그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국내 손꼽히는 그룹사에서 이뤄지는 사내 경쟁 시스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웰크론강원 경영지원본부장 이훈규 상무 또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부분에 동의하며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인의 위치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이 결정권자인지 또는 결정권자를 보필하는 스태프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행동해야 회사의 의사결정이 빨라지며, 이에 따른 실행지침도 신속히 이루어집니다."라며 본인의 위치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 그리고 소통**

토론 참가자 모두는 '조직 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회사 초기에는 잘 이뤄졌던 상하 간의 소통이 어느 틈엔가 사라졌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웰크론 관리본부장 신동진 상무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을 지키는 못하는 요즘의 세태를 예로 들었다. "최근 회사 내에서는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직원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와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방임을 혼동하는 것처럼,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복장을 갖추지 않고 있는 직원을 볼 때 더욱 기본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기본 예의를 지키고 업무에 집중할 때 비소로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 상하 간의 소통의 부재 또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 또한 기본을 지키지 않는 태도와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난 참극이었는데 반론의 여지가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본을 지키는 자세와 조직 간의 예의와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간다면 더 넓은 세계로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3인의 임원진은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토론에 참여한 3명의 임원이 제시하는 직장생활의 노하우 3가지**

**첫째**, 솔선수범 하라.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움직일 것. 즉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능동적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

**둘째**, 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뛰어야. 요즘 직원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 유선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담당자를 직접 만나 얼굴을 보며 일을 진행할 때 어려운 일도 해결된다.

**셋째**, 본인의 위치에 충실하라. 직원은 직원답게, 중간 간부는 중간 간부답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라. 그러면 상사에게 신뢰감을 주고 부하 직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웰크론강원 경영지원본부장 **이훈규** 상무



웰크론 관리본부장 **신동진** 상무



웰크론그룹 기획조정실장 **이윤무** 상무

웰크롱강원, 폐기물처리업체 '투모로에너지' 인수

## 신재생에너지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다

웰크롱그룹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웰크롱강원은 고품연료, 생활쓰레기, 산업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중점을 두며 관련 기업과의 MOU 및 M&A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폐기물처리업체 (주)투모로에너지를 인수하면서 웰크롱그룹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 웰크롱그룹의 또 하나의 신사업 토대 마련

웰크롱강원은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산업용 보일러와 폐열회수보일러, 황회수설비 등을 통해 축적된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기반으로 또 하나의 신사업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웰크롱강원은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 분야 EPC(설계부터 구매, 시공까지 일괄도급하는 시스템) 사업 진출을 선언한 지 넉 달 만에 66억 규모의 제주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고형연료) 생산시설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하였다. 이는 웰크롱강원이 지난 1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발전에너지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지난 6월 웰크롱강원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에 또하나의 성과가 이어졌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주)투모로에너지의 지분을 100%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 것이다. 이것은 웰크롱강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웰크롱강원의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박덕만 본부장은 "이번 투모로에너지 인수를 계기로 고품연료(SRF) 생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소각 및 스팀공급 사업까지 진출하게 됐다"며 "향후 폐기물 소각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해 폐기물 처리, 스팀공급, 전력판매 등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할 계획"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 발전사업

웰크론강원이 새롭게 진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친환경 발전사업'이라고도 불린다. 쓸모없이 버려지는 쓰레기를 회수해 제2의 에너지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와 같이 부존자원과 에너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쓰레기 매립장 포화에 대한 우려가 술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발전사업은 그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쓰레기 소각시설을 '자원회수시설'이라 부르는 것도 매립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각광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러한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 처리는 물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소각하여 발생하는 여열(餘熱)을 통해 주변 업체에 스팀을 공급하기도 하고, 발전 터빈(Turbine)을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수익사업으로도 이어진다. 한마디로 쓸모없어 보이던 쓰레기 속에는 엄청난 수익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향후 10년 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웰크론강원에게 효자사업으로, 나아가 웰크론그룹의 미래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주)투모로에너지 인수, 웰크론강원의 청사진을 제시하다

이번에 웰크론강원이 인수한 (주)투모로에너지는 1999년에 설립된 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체다. 총 4,725㎡ 규모의 소각시설에서 하루 48톤의 폐기물 소각 및 300톤의 슬러지(Sludge, 보일러 바닥에 침전하는 불순물) 처리가 가능한 중견 소각 운영업체다. 이러한 투모로에너지 인수를 통해 웰크론강원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단순히 발주처로부터 오더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고정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박덕만 본부장은 "건설팅부터 제조·사후관리까지 일괄 설계·구매·시공(EPC) 과정을 거쳐야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웰크론그룹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프로젝트별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종합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interview

웰크론강원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박덕만** 본부장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 정책과제이자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는 1990년대부터 에너지 사업을 필두로 줄곧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소각열을 이용하는 슬러지 처리장치를 구비한 폐기물처리시스템' 및 '분노처리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쌓아온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이 이번 웰크론그룹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과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웰크론그룹 이영규 회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비전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박덕만 본부장의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또 하나의 신사업 토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바이오매스(Bio-mass) 연료화 사업과 관련해 특허를 보유한 박덕만 본부장은 오랜 기간 국내·외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웰크론의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웰크론그룹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하다.

위기를 넘어 도약의 기회로!

# 웰크론그룹

## 2014 간부2과정 교육 워크숍 현장 스케치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분당에서 웰크론그룹 2014 간부2과정 교육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웰크론그룹의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사 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별 현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웰크론의 어제와 오늘, 미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다

청명한 햇살이 푸른 잔디 위에 반짝이던 지난 5월, 분당구 울동에 위치한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는 수석부장을 제외한 팀장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간부2과정 교육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소통을 통한 화합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그룹의 일원으로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내자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웰크론그룹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각 사 팀장들은 활발한 토의를 통해 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해 냈으며, 이를 실제 경영현장에 적용해보리라 다짐하며 힘찬 파이팅을 외쳤다.

### 헝그리 정신과 프로 근성이 유능한 관리자를 만든다!

첫째 날 오후, 각 사 팀장들은 그룹 기획조정실 이윤우 상무의 주관 아래 1분 스피치로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초반에는 수줍어하며 순서를 미루기도 했지만 금세 각자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꼽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인연을 익혀 나갔다. 이후 자기경영 전문가인 공병호 소장의 '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 강연이 이어졌으며, 저녁에는 웰크론그룹 임직원들의 끼와 열정이 한껏 분출된 화합의 시간을 끝으로 첫째 날 밤은 화려하게 저물어갔다. 둘째 날 오전에는 이영규 회장의 CEO 강연이 이어졌다. 이영규 회장은 웰크론의 역사와 비전,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며 각 사 간부들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 이자리에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웰크론그룹을 잘 이끌어 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조우성 변호사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노하우' 강의와 평가를 끝으로 2014 간부 워크숍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긴 시간 이어진 강의에 지칠 법도 하지만 직원들은 중요한 내용을 끊임없이 필기하고 강사들의 질문에 활발히 대답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했다. 프로를 넘어 유능한 리더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웰크론그룹 팀장들. 2022년 매출 2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웰크론그룹은 헝그리 정신과 프로 근성을 기반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능한 관리자는 강한 조직을 만든다.'는 말처럼, 그들의 리더십이 빛나는 2014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워크숍은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역량 업그레이드는 물론, 웰크론그룹의 향후 목표와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각 사별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웰크론 리더들의 눈빛이 교육 내내 반짝인다. 헝그리 정신과 프로 근성으로 푹푹 뭉친 유능한 관리자는 기업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웰크론그룹 전 직원 소방훈련 실시 철저한 위기대응 훈련으로 안전 경영을 실천하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웰크론그룹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안전'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웰크론그룹의 임직원들, 그 생생한 현장의 순간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 실전처럼 훈련하라! '화재대피 모의 훈련'

만약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건물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불이야~'를 외치면서 밖으로 뛰어나가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실내는 연기로 인해 시야가 흐려져 앞을 보기도 힘들다. 이때 연기를 한 두 모금만 마셔도 뇌에 산소 공급이 끊기거나 경련 및 마비 증세가 올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사망자의 70~80%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 때문이라고 한다. 또 대부분의 사망자가 출입구 부분에서 발견된다고 하니 건물 밖으로 무사히 나가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대피 훈련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훈련을 실시한 웰크론그룹. 그 첫 번째 훈련으로 지난 5월 20일 '화재대피 모의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날 전직원에게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용 수건이 지급됐다. 마스크용 수건에 물을 적셔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하는 웰크론 직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 '소화기 사용 교육'에 이어 '자위소방대'



#### Tip.

####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화재를 큰 소리로 알린다.
- 연기나 불길의 확산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조심해서 대피하여야 한다.
- 상황에 따라 가능하면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한다.
-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코와 입, 얼굴을 가린다.
- 자세를 낮춰 비상구나 옥상, 화장실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귀중품을 챙기려 하지 마라.
- 문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겁지 않을 때만 문을 열어야 한다.
- 이동 시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한다.



사고 후 수습에 급급하기보다 '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웰크론그룹, 소방훈련을 실시한 뒤 웰크론 직원들은 "이론상 막연하게 알고 있던 대응 요령을 직접 경험하면서 큰 차이를 느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화재 발생 시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결성까지!

웰크론그룹은 화재 발생에 대비해 '자위소방대'를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 4개사 임직원이 고루 배치된 자위소방대는 화재 발생 시 임직원들이 미리 정해진 위치에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휘훈련, 정보, 경보, 소화, 대피 유도, 반출, 의료, 후송 등 역할을 세분화시켰다. 자위소방대 대원들은 평소 각자의 임무에 맞는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고, 다른 팀과도 임무를 공유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그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6월 7일에는 웰크론그룹 본사 옥상에서 '소화기 사용요령'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에서 자위소방대는 실제로 소화기 작동법을 배우고, 소화호스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등 간접적으로나마 화재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소화기의 위력에 뒷걸음질 치기도 했고, 또 어떤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씨를 제압해 보기도 했다.

소방훈련을 실시한 뒤 웰크론 직원들은 "이론상 막연하게 알고 있던 대응 요령을 직접 경험하면서 큰 차이를 느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화재 발생 시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웰크론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사고 발생을 대비한 훈련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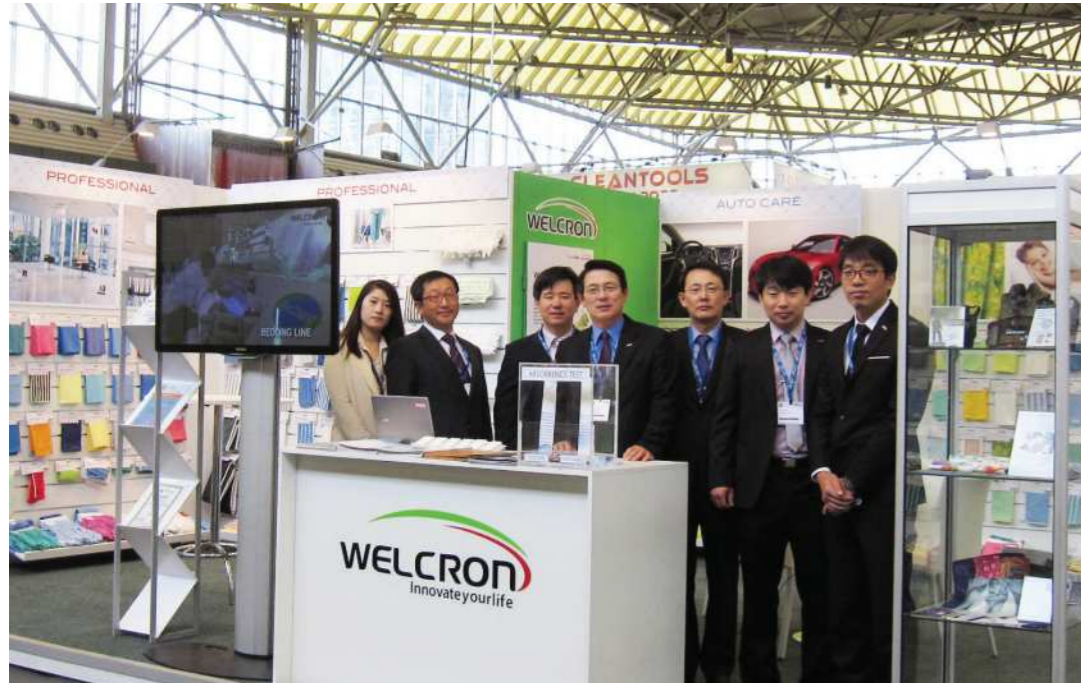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사고 후 수습에 급급하기보다 '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웰크론그룹의 임직원들, 그들의 모습에서 기본에 충실한 안전경영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Welcron ISSA 암스테르담 전시회 참가 현장

해외에서도 잘 나가요~!

## 국내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는 Welcron



Welcron은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ISSA 인터클린 전시회에 참가했다. ISSA의 주요 전시 품목은 청소용품, 폐기처리기술 관련 장비, 수질관리기기 등으로 전 세계 65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행사다. 올해는 130여 개국에서 2만 8천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세계 클린용품 시장의 동향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Welcron이 직접 참가하고 들여다본 ISSA 인터클린 전시회,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 ISSA 8번째 참가, 300여 가지 아이템 전시

ISSA 인터클린 전시회는 2년에 한 번씩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국제 위생용품 전시회'로, 청결 유지 및 건물 위생 관리에 관한 최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8회에 걸쳐 ISSA 암스테르담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 Welcron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시장 상황과 경쟁사 동향 파악은 물론이고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세계시장 공략에 나섰다. 또한 해외시장에서 Welcron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한층 더 높이며,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올해는 이영규 회장을 비롯해 이광규 독일지사 상무, 존박 네덜란드 지사장, 글로벌비나 조용오 사장, 영업본부 김성철 상무 등이 참석해 Welcron의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했다. Professional, Auto Care, Home Care, Anti-bacterial & Eco-friendly 등 4개의 섹션으로 나뉜 Welcron의 부스에는 신규 제품을 포함해 약 300여 가지의 아이тем들이 전시됐다.



Welcron, 해외에서도 인기몰이!

해외 시장에서 Welcron의 위상을 재확인하다

이번 ISSA 전시회를 통해 유럽시장에서 Welcron이 가지는 위상은 한층 더 높아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화이버'하면 '실버스타(은성, Welcron의 옛 사명)'가 연상될 만큼 유럽시장에서 Welcron의 인지도는 높았다. Welcron 부스는 마이크로화이버를 찾는 바이어들로 연일 북적였다. 또한 기존 유럽 바이어 외에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등 중동지역의 신규 바이어까지 발굴하며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약 120명의 신규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Welcron 해외영업팀의 오유숙 계장은 "전시회 기간 동안 바이어들을 직접 상담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해외 시장에 직접 나와보니 Welcron의 위상을 직접 느낄 수 있어 뿌듯했다."면서 "새롭게 발굴한 바이어들과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전시회는 끝났지만 오유숙 계장을 포함한 Welcron 직원들은 샘플 제작과 견적 산출로 여전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Welcron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신규 바이어 창출과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증대, 그리고 향후 신제품 개발과 영업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Welcron은 해외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영업 활동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석원약품·서울동원팜 김포고촌물류센터 신축공사

## 수도권 물류의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수도권은 현재 물류전쟁을 방불케 한다. 서울 내에는 대지 가격이 비싸 물류 창고를 두기 힘들고 경기도권에는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보다 교통권이 좋은 입지에 물류 창고를 마련하고자 기업마다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고촌물류센터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 웰크론한텍의 기술력이 집약된 물류센터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 일 년간의 땀이 결실을 맺다

지난해 6월 웰크론한텍이 공사를 시작한 대단위 물류센터인 '석원약품, 서울동원팜 김포고촌물류센터'는 오는 7월 말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지면적 7,963㎡(2,409평), 건축면적 3,446,48㎡(1,043평), 연면적 14,919,825㎡(4,513평)에 달하는 이번 물류센터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RC)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PC)가 더해진 공법으로 지어 튼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다. 또한 지상 6층은 PEB 구조로 공사하여 내부에 기둥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 보니 넓은 내부공간의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





수도권 물류의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 웰크론한텍 ENC사업본부의 이경열 차장, 곽경호 이사(좌측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된 웰크론한텍 ENC사업본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꾸준한 영업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웰크론한텍이 이전에 진행했던 '부림·신성약품 물류센터'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석원약품의 사업주들이 업무 처리 능력을 높게 평가해 이번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부림·신성약품 물류센터는 석원약품 물류센터의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ENC사업본부는 더욱 더 책임감을 갖고 이번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다. 공사 진행이 녹록지만은 않았다. 지난겨울 골조공사를 진행할 때, 기온이 영상 4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과 관련있는 공사(습식공사, 콘크리트 타설 등)는 가능한 지양하고, 부득이 할 경우 보양을 철저히 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때 콘크리트 타설 부위 전체를 보양막으로 막아서 외부 공기가 침입되지 않도록 하고, 보양막 내부에서는 열풍기·갈탄난로 등으로 열을 가하여 영상 10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해야 했다. 직원들이 밤새 열풍기 기름도 갈아주고, 갈탄난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갈탄을 충전하는 등 이를 위해 직원들이 현장에서 꼬박 밤을 세우기도 했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지만, 고생한만큼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건축물을 볼 때는 힘든 것도 잠시 잊고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현재 공무 부분을 담당하는 이경열 차장은 지금도 지난 겨울의 힘든 시기를 회상하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한다.

최신 공법으로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게


이번 물류센터 공사에는 웰크론한텍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건축물의 외관이 새롭다. 사무동의 경우 외관 전체를 커튼월로 시공해 주변의 다른 건축물과 차별화를 두었다. 기능면에서도 다르다. 건축물의 우측면, 배면과 같이 건물이 인접해 있는 부분에 마감 판넬을 이중으로 시공해 단열기능을 강화했다. 무엇보다도 화재 시 주변건물에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기능을 보강했다. 고촌물류센터 현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점차 완성되고 있는 웰크론한텍의 '작품'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한단다.

김포고촌물류지역의 랜드마크로 우뚝서다

아라뱃길 경인항 부근에 위치한 고촌물류센터는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조성되었지만, 수로를 통한 운반은 경로가 한정되어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화물차량을 이용한 운반이 수월하기 때문에 물류창고의 위치로서 가치는 충분하다. 고촌물류센터와 더불어 반대편에 위치한 인천항물류센터의 건설사업이 더욱 더 활발해 진다면, ENC사업본부에게는 더 많은 수주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nterview



웰크론한텍  
ENC사업본부  
건설사업부  
**곽경호** 이사

여러 악조건 속에서 거의 1년간 공사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여 회사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직원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 지금까지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인수 인계가 끝나고 모든 직원이 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ENC사업본부 현장직원들은 이번 공사가 김포고촌 물류단지, 더 나아가 전국 물류창고의 랜드마크가 되어 웰크론한텍이 종합건설사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이들의 바람대로 앞으로 계속 뻗어가는 웰크론한텍의 행보를 주목해보자.



미래를 지배할 기술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해수담수화설비를 비롯한 수처리 설비는 미래 산업의 주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한 웰크론한텍은 수처리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엘림하이드로를 가족사로 맞이하여 수처리 시장의 강자로 거듭나고 있다.

**박용수**  
**수처리 기술의**  
**최신공법과**  
**무한한**  
**가능성의 결합**

도전하는 웰크론인을 위한 박용수 사장의 3문 3답

**01** (주)엘림하이드로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앞선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처리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3D 설계를 도입하여 설계에서부터 설비·제작·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일괄공정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02** 웰크론한텍과 손잡게 되면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기술력에 비해 외형이 작아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수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영업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또한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웰크론한텍과 만나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 앞으로 더욱 기대가 큼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주)엘림하이드로는 지난 20년 동안 수처리기기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로 최첨단 설비인 전기탈이온 장치(EDI)를 설계, 시공할 뿐만 아니라 해수담수화 설비 및 반도체 초순수 설비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진행하는 업체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수처리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 손꼽히고 있다. (주)엘림하이드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중국 등지에 수처리 플랜트를 공급한 실적이 있으며 국내에도 연평도, 조도, 영흥화력발전소 등 국내 도서지역과 산업단지에서 180여 건의 수처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엘림하이드로는 보다 더 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수차례 대기업이나 공공 기관에서 발주한 대형 담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웰크론한텍과 손잡고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현재 웰크론한텍과 함께 영종도 수처리 설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간당 200톤 규모의 설비를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보다 큰 잠재력을 갖춘 미래를 만나다**

웰크론한텍과 엘림하이드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특히 웰크론한텍 담수사업부의 강용대 차장과는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2013년 포스코건설에서 발주한 우도 담수화설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담수화 설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웰크론한텍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후 엘림하이드로의 기술적인 장점과 웰크론한텍의 큰 규모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경험을 통해 상호간의 'win-win 전략'을 목표로 손잡게 되었다. 이로써 웰크론한텍은 역삼투압(RO) 방식의 담수사업은 물론 약품주입장치(Chemical dosing), 용수 재이용 설비, 금속 표면처리 등 수처리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 구축했다. “이제 웰크론한텍과 함께 보다 큰 시장 확보를 위해 우리 회사가 지닌 기술력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선보일 예정”이라며 박용수 사장은 힘차게 포부를 밝혔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수처리산업을 개척해 나가는 엘림하이드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3** 웰크론그룹의 독자들에게 밝히는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웰크론그룹과 함께 미래 산업의 주축인 수처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보다 큰 수주를 통해 웰크론그룹과 함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의 미래를 엿보다

## 웰크론글로벌비나 직원들의 한국방문기



지난 6월 16일, 웰크론그룹의 베트남 법인인 웰크론글로벌비나 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세 명의 베트남 직원 힙(Hiep), 토이(Thuy), 휘(Huy)는 일주일 간의 일정 속에서 웰크론그룹의 앞선 기술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웰크론그룹 가족사들의 공장을 돌아보며 그 규모와 노하우를 엿볼 수 있었던 웰크론글로벌비나 직원들. 생동감 넘치는 한국의 에너지를 맞본 그들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보자.

### 웰크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한눈에 보다

웰크론글로벌비나 직원들이 처음 발걸음 한 한국의 웰크론 현장은 수원시 장안면에 위치한 '웰크론강원 화성공장'이었다. 에너지 플랜트 전문 기업인 웰크론강원의 주요 사업은 산업용 보일러와 황회수설비 사업이다. 공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발전용 보일러 스택(Stack)이 시선을 압도한다. 국내 산업용 보일러 시장에서 최대 규모와 최다 납품 실적을 자랑하는 웰크론강원은 현재까지 국내외 200톤 이하의 중소형급 보일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대형 보일러 시장 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장 내 설비와 자재 하나하나를 모두 유심히 들여다보는 베트남 직원들. 웰크론강원 소속 현장 직원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는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한국말이 능숙한 토이(Thuy)는 현장 직원의 말에 더욱 집중하며 베트남 동료들의 질문도 대신 전한다. 웰크론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현장 직원 역시 베트남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갖가지 제스처를 총동원해 온몸으로 노하우를 전달했다. 현장 직원의 열의에 넘치는 모습에 베트남 직원들의 입가에도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이들은 웰크론강원 화성공장에 이어 웰크론 음성공장, 웰크론한텍 화성공장, 웰크론헬스케어 부평공장도 방문하는 등 베트남 직원들의 한국 방문 일정은 계속되었다.

이번에 실시된 웰크론글로벌비나 현지직원의 한국방문은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 행사이다. 웰크론그룹 각 계열사의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를 둘러보는 3박 4일간의 일정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웰크론그룹의 위상과 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한국 문화의 체험을 통해 모 기업의 근간이 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심 속 서울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청계천 돌다리를 웰크론글로벌비나 직원들이 직접 밟고 있다.  
힙(Hiep), 토이(Thuy), 휘(Huy)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 서울의 명소 곳곳을 누비며 즐거운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나갔다.



## 서울 명소를 찾아 떠난 즐거운 여행

베트남 호찌민시에 위치한 웰크론글로벌비나. 이곳은 웰크론 그룹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2012년 설립한 첫 해외법인으로 약 300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과 동일한 유교 문화와 근면한 국민성을 가진 베트남은 한국 기업과 문화에 대해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한국방문 체험에 많은 직원들이 지원했다고 한다. 수많은 지원자 가운데 행운은 힙(Hiep)과 토이(Thuy), 그리고 휘(Huy)에게 돌아갔다. 나이도 비슷한 세 명의 직원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친한 사이였으며 즐거운 수다를 멈추지 않았다. 서울 곳곳의 명소를 직접 눈에 담느라 그들의 하루는 빠르게 지나갔다. 동대문 시장에서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마음먹었던 쇼핑 목록을 해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힙(Hiep).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그들의 얼굴에 기분 좋은 여독(旅毒)이 살짝 엿보인다.

다음날, 광화문 일대 청계천과 서울시청, 덕수궁, 남산한옥마을 등을 돌아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 서울의 모습을 부지런히 눈에 담았다.

## 한국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안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다

도심 한가운데 서울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청계천. 그 길을 따라 걸던 토이(Thuy)는 청계천 속 작은 송사리들을 발견하고는 신기한지 물속에 들어가 봐도 되는지 묻는다. 신발을 벗고 소녀처럼 물속에 발을 담그는 토이의 모습을 힙(Hiep)과 휘(Huy)가 사진에 담는다. 높은 빌딩 숲 사이, 그들은 그렇게 한국에서의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일주일 간의 짧고도 긴 여정에는 그룹기획조정실 경영지원팀의 김인에 사원이 인술을 맡았다. 몇 일간의 동행으로 그새 정이 들었는지 김인에 사원에게도 함께 사진을 찍자며 토이(Thuy)가 말을 건넨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그들은 어느새 서로에게 친근함을 느끼는 사이가 되어있었다. 이번 한국방문 이 세 명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





서울 남부에 자리한 청계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맑은 공기와 휴식을 주는 선물과도 같은 산이다.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전해주는 청계산에 웰크론그룹 공채 2기 신입사원들이 모여 청계산 등반에 도전했다.

웰크론그룹 공채 2기 신입사원 청계산 등반  
**산보다 푸른 마음으로  
웰크론그룹의  
젊은 피가 되다**

**하늘 아래 두려울 것 없는 신입사원의 패기로**

지난 6월 조금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르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웰크론그룹 신입사원들은 청계산 산행을 위해 모였다. 청계산 줄기가 시작되는 옛골분기점에 모인 시각은 오전 9시. 모두들 가벼운 산행을 위한 차림으로 등산에 필요한 음료수 및 간단한 간식 등을 배낭에 챙기며 등산 준비를 했다. 이번 등산 코스는 청계산을 오르는 여러 갈래의 코스 중에서도 비교적 짧고, 험하지 않다고 알려진 옛골에서 이수봉 구간이었다.

웰크론그룹에서 매년 전통적으로 시행하던 기존의 단체 산행 구간에 비하면 짧은 코스임에 분명했지만, 아직 그룹사 단체 산행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입사원들이었기에 개인차를 고려해서 비교적 쉬운 구간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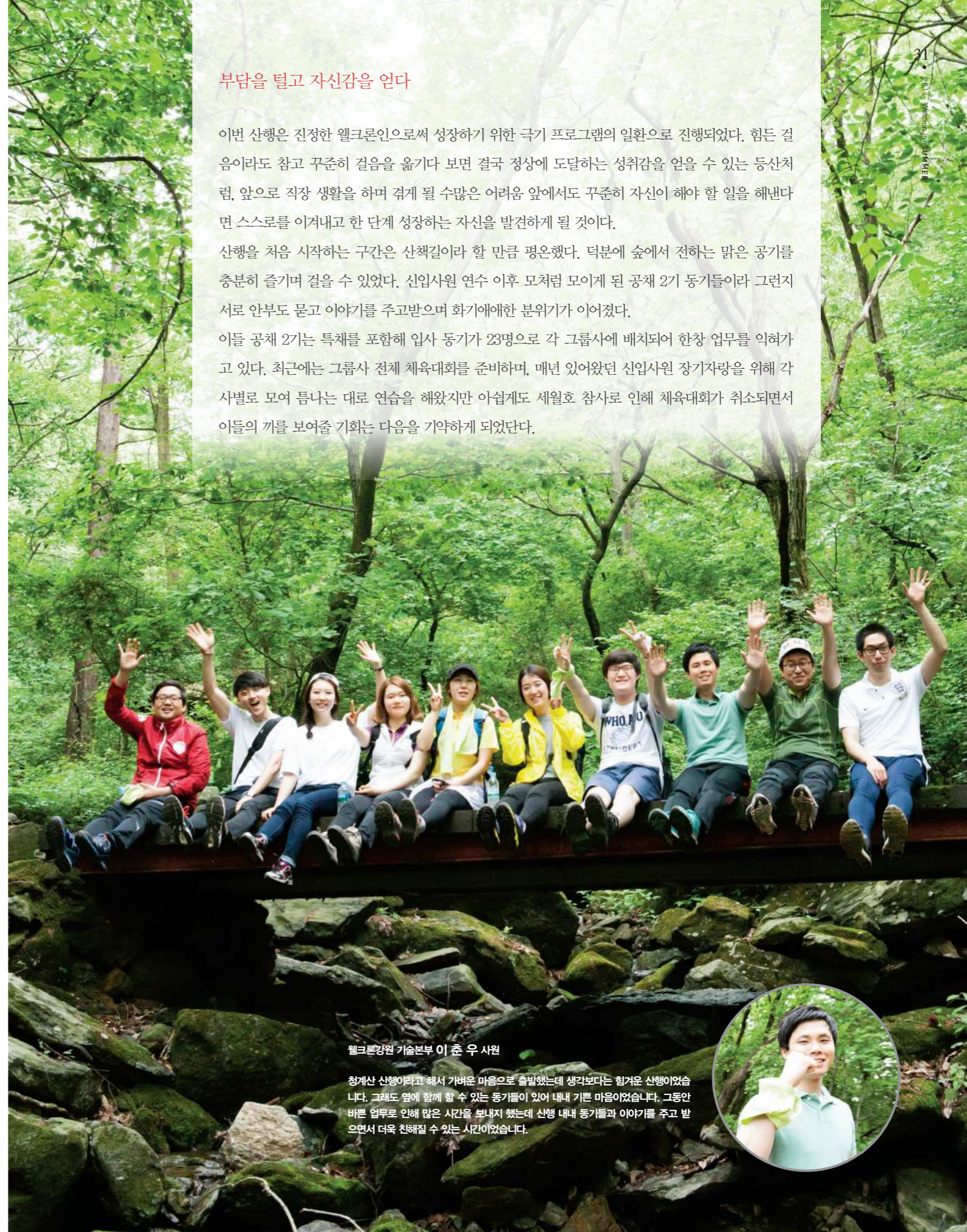
왕복 세 시간 거리의 짧은 산행이라고는 하지만, 산 정상을 오르는 일은 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법. 모든 등산 장비를 점검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각자 몸을 풀고서는 드디어 산행을 시작했다. 옛골 입구에서 보이는 청계산은 봄 햇살을 받아 더욱 포근해 보였다.

**부담을 털고 자신감을 얻다**

이번 산행은 진정한 웰크론인으로써 성장하기 위한 극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힘든 걸음이라도 참고 꾸준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결국 정상에 도달하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등산처럼,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꾸준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낸다면 스스로를 이겨내고 한 단계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산행을 처음 시작하는 구간은 산책길이라 할 만큼 평온했다. 덕분에 숲에서 전하는 맑은 공기를 충분히 즐기며 걸을 수 있었다. 신입사원 연수 이후 모처럼 모이게 된 공채 2기 동기들이라 그런지 서로 안부도 묻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들 공채 2기는 특채를 포함해 입사 동기가 23명으로 각 그룹사에 배치되어 한창 업무를 익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그룹사 전체 체육대회를 준비하며, 매년 있어왔던 신입사원 장기자랑을 위해 각 사별로 모여 틈나는 대로 연습을 해왔지만 아쉽게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체육대회가 취소되면서 이들의 끼를 보여줄 기회는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



웰크론강원 기술본부 이춘우 사원

청계산 산행이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생각보다는 힘겨운 산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동기들이 있어 내내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업무로 인해 많은 시간을 보내지 했는데 산행 내내 동기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교적 평탄한 숲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나다 보니 어느덧 청계산은 '지금부터 시작이야'라고 말하듯 가파른 길이 이어졌다. 간밤에 내린 비로 길이 미끄러워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았는지 동기들끼리 이어지던 수다가 이내 잠잠해 졌다. 하지만 험한 코스를 만나면 여지없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산길을 묵묵히 올랐다.

중간 중간 잠시 쉬는 시간에는 서로 물과 간식도 나눠먹으며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이어지는 산행 구간은 이번 산행길의 최대 고비인 '깔딱고개'를 만났다. 가파르고 험한 오르막길이 20여 분 동안 이어지는 구간으로, 다리는 한없이 무거워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웰크론그룹의 '젊은 피인' 신입사원답게 모두 묵묵히 정상에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험준한 '깔딱고개' 구간을 지나자 드디어 도착한 이수봉.

모두 힘든 모습은 사라지고 정상에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작은 성취감이 서로의 얼굴에 비쳤다.

힘든 길을 뚫은 내색 없이 모두 무사히 정상에 오른 데에는 동기간에 서로 힘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을 터였다.

웰크론그룹의 신입사원으로서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공채 2기. 앞으로의 회사 업무도 이번 산행처럼 동기들 간에 서로 돕고 의지하며 정상을 향해 묵묵히 오른다면 언젠가는 다 함께 성공이라는 정상에 오를 날이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웰크론 해외영업팀 선 유 나 사원

평소에 부모님과 등산을 자주 다니다 보니 이번 청계산 산행도 큰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회사가 다르다 보니 동기들과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려웠는데 신입사원 연수 이후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입사한 지 10개월 차지만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지 2주밖에 안되어 마음가짐이 새롭습니다. 선배님들도 제가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만큼, 열심히 배워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웰크론그룹의 신입사원 공채 2기. 앞으로의 회사 업무도 이번 산행처럼 동기들 간에 서로 돕고 의지하며 정상을 향해 묵묵히 오른다면 언젠가는 다 함께 성공이라는 정상에 오를 날이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Welcron 강원 경영지원본부 **전창락** 부장 가족

# 중국 전통공원 '월화원'에서의 즐거운 주말 나들이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화창한 날씨 속에  
전창락 부장 가족은 아침 일찍  
조금은 색다른 장소로 나들이를 떠났다.  
바로 수원에 위치한  
중국 전통공원 '월화원'으로 향한 것.  
바쁜 일상 속에 오랜만의 나들이라 그런지  
세 가족의 얼굴은 화창한 날씨만큼 밝았다.



## 도심 속 작은 중국, '월화원'에 가다

전창락 부장의 집 가까이에는 수원의 숨은 명소가 한 군데 있다. 2006년 개원한 중국 전통공원 '월화원'이 바로 그곳이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효원공원 내에 1,800여 평 규모로 지어진 이곳은 중국 광둥성과 경기도의 우호교류를 위한 상징물로 건립된 곳이다. 이국적인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발걸음 하는 전창락 부장 가족.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으며 다들 놀란 눈으로 이곳저곳을 들여다보기에 바쁘다. 늦잠으로만 보내기엔 너무나 아까운 청명한 주말 아침. 전창락 부장 가족은 오늘 이곳에서 또 하나의 작은 추억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오랜만의 가족 데이트로 딸 은영이보다 더욱 신이 난 전창락 부부.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여유로운 주말,  
오랜만의 나들이로 두 사람은  
연애하던 시절의 분위기를 한껏 내본다.



## 딸에게 언제나 든든한 아با이고 싶은 마음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평일에는 가족들 얼굴 하나하나를 여유롭게 마주하기 힘들다. 하나뿐인 딸 은영이는 어느새 훌쩍 커서 각쟁이 여중생이 되었다. 동생이 없어 외롭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그럴 때마다 은영이는 엄마와 아빠가 계시니 외롭지 않다고 의젓하게 이야기한다. 부모로서 남들보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딸 은영이. 그렇기에 아빠는 딸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고,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한다. 하지만 누구나 처음일 수밖에 없는 '부모'라는 이름 앞에서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은영이에게 천천히, 조금씩 친근하게 다가가 보려 한다는 전창락 부장. 그런 그에게서 아바의 한결같은 든든함이 느껴진다.



**Tip. 호원공원 内 '월화원'**

월화원은 중국 광둥(廣東)성이 호원공원 서면에 조성한 중국 식 정원이다. 광둥 지역 전통 정원의 특색을 살려 건물과 정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03년 10월 경기도와 광둥성이 체결한 '우호 교류 발전에 관한 실행 협약'의 내용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전통 정원을 상대 도시에 각각 짓기로 한 약속에 따라 건립되었다.

- ★ 입장료 : 무료
- ★ 이용시간 : 09:00 ~ 18:00 (연중 개방)
- ★ 문의사항 : 수원시 푸른농지사업소  
031-228-4184, 4187

**중국 광둥(廣東)의 원림을 생생하게 느끼다**

중국인 기술자들이 일년여 동안 직접 시공을 맡아 건축된 월화원. 중국 무협 영화에서나 보던 공간들이 그대로 펼쳐진 월화원을 걸으며 세 가족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거리들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조금 서먹해하던 은영이도 정원을 한 바퀴 다 돌았을 때쯤엔 엄마, 아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부지런히 풀어놓는다. 재잘거리는 은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 가족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꽃이 피어난다. 오랜만에 가족사진을 싣기 찍어본다며 설레는 표정을 짓는 전창락 가족. 연꽃 정자라는 뜻을 가진 '부용사' 앞에서도 모녀가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본다. 월화원은 중국 영남(남쪽) 지역의 강과 호수, 그리고 건축물이 잘 어우러진 모습을 충실히 담은 곳이다.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고 여유로움까지 안겨줘 중국 광둥 지역의 원림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가족여행**

웰크론강원에 입사한 지 어느덧 만 20년이 지난 전창락 부장. 그는 현재 경영지원본부 구매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구매팀의 경쟁력이 곧 웰크론강원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는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으로 그는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으로 그는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으로 그는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으로 그는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SESA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신혼부부의 달콤한 트러블도 케어해드립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SESA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백화점 매장 내 위치한 만큼 백화점 영업일과 영업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닫는다. 별도의 휴무일도 없이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다 보니 늘 쉬는 날 없이 운영되고 있다. 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눈 높은 백화점 고객을 끌어들이는 'SESA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살펴보자.

## 백화점의 특징과 조화를 이룬 매장

SESA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유리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젊은 고객층도 많고 주변의 아파트·주택가에 상주인구도 많아 상권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백화점 내에 입지한 SESA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경우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극복해야 할 단점도 많다. 동업종의 매장이 같은 층에만도 여러 개가 입점하고 있어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윤정숙 매니저는 백화점 내 매장의 특징을 잘 살려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 9층 침구·잡화 코너에 위치한 SESA 매장은 고객의 주요 이동 동선인 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해 있고, 엘리베이터와도 마주하고 있어 아이쇼핑을 즐기는 고객의 눈길까지도 머물 수 있도록 매장 위치를 잡고 있다. 또한 백화점 입점 매장의 특성상 공간이 좁고 많은 제품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보기 좋게 전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백화점 매장 맞춤형'으로 운영하며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청결을 기본으로 한 고객 응대

고급스러운 백화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은 가치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여타의 매장과 달리 백화점을 방문하는 목적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조금의 지출을 더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객의 생각을 미리 파악하여 SESA 영등포점이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매장의 청결 상태이다. 다른 매장보다 깨끗하고 보기 좋아야 고객의 발길이 찾아진다는 생각에서다.

"저희 매장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인지 알레르기 케어 등 건강 관련 제품도 문의가 많고 특히 제품의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이러한 고객층을 위해 특별히 화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많이 진열해 놓고 있다. 또한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면 각 제품의 기능적 특징도 꼼꼼히 설명하여 고객의 원하는 제품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상품은 '바넷사' 제품이다. 세련된 색감과 디자인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 많이 찾는다고 한다. SESA의 모든 제품이 그러하듯이 한번 제품을 사용해 보면 다시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고객에게는 특별히 주문한 제품을 준비해 놓았다가 판매하기도 한다.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한다는 보람으로 하루 하루를 새롭게 준비한다는 김현숙 부매니저는 SESA 매장 오픈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전해주고 싶다고 한다.

작은 매장이지만 동종의 다른 매장과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서고 있는 SESA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앞으로도 늘 행복한 고객의 발걸음으로 분주하길 기대해본다.



## 유아용&성인용 기저귀의 모든 것 보드라운 순면 감촉, 이제 당신도 누리세요!

기저귀는 이제 더 이상 아기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저출산으로 유아용품 시장이 점차 축소되는데 반해 고령화에 따른 성인용기저귀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최초 한방 생리대를 개발한 '예지미인'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유아용 기저귀 '예지천사'와 성인용 기저귀 '예지보감'을 동시에 출시했다.



###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신의 한 수, 예지보감

일본에선 2020년경 성인용 기저귀 수요가 유아용 기저귀 수요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성인용 기저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3~4년간 성인용 기저귀 시장이 매년 20%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는 약 1200억 원 규모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내 위생용품 업계는 기존의 주력 제품인 기저귀, 화장지, 생리대와 더불어 성인용 기저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예전의 성인용 기저귀가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활동하는 중장년층,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주 고객층이다. 요실금, 배노장에 해결 등 기본적인 기저귀의 기능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과 냄새 제거, 착용감, 디자인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한 제품이 각광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리대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면, 요실금 팬티는 노년층의 사회활동 확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웰크론헬스케어 역시 이미 지난해 1월, 성인용 요실금 패드 '예지보감'을 출시하며 성인용 기저귀 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예지미인'과 '예지천사'를 통해 여성용·유아용 기저귀를 제작·판매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생활용품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Tip.**

#### 프리미엄 한방 성인용 기저귀, '예지보감'

쑥, 당귀, 솔잎, 아성초, 박하 등 5가지 한방 성분이 함유된 흡수층이 냄새를 잡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발집 모양 패턴의 순면 감촉 커버가 '예지보감'이란 브랜드 이름에 걸맞게 피부를 보드랍게 감싸준다.



### 예지천사 라인업으로 여름철 우리 아기 피부 걱정도 제로!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요즘, 민감한 아기 피부는 땀이나 트러블도 자주 발생하고 짓무르기도 쉽다. 보송보송한 아기 피부 관리는 엄마들의 영원한 제1순위 관심사다. 특히 여름철 많이 나타나는 기저귀 발진과 피부염 등으로 인해 엄마들의 기저귀 선택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웰크론헬스케어의 유아용 위생용품 전문 브랜드 '예지천사'. 엄마를 위해서는 좀 더 편안하게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아이를 위해서는 움직임이 많아도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되었다. 또한 시기와 몸무게에 따라 세심하게 구성된 라인업이 시선을 끈다. 특히 올 4월 새롭게 출시된 '예지천사 팬티기저귀'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들의 활동성을 고려해 설계되었다. 탄력 있는 일체형 샘 방지 밴드가 다리 부분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양의 소변도 새지 않게 막아준다. 웨이브 가공의 폭신하고 신축성이 우수한 서링 벨트는 아기의 허리 부분에 편안하게 밀착되며, 벨트와 커버 모두 숨쉬는 통기성 커버를 적용해 쾌적함을 높였다. 연약한 우리 아기 피부 관리는 앞으로도 '예지천사'가 도와줄 것이다. 올 여름 피부 트러블 걱정 없이 보송보송한 아기 피부를 원한다면 '예지천사'의 라인업에 주목해보자.

**Tip.**

#### 엄마와 아기가 모두 행복한 유아용 기저귀, '예지천사'

예지천사는 엄마와 아기가 모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저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콘셉트로 4월, '팬티형 기저귀'도 새롭게 출시되었다. 탄력있는 일체형 샘 방지 밴드가 다리부분을 편안하게 감싸주며 벨트와 커버에 숨쉬는 통기성 커버를 적용해 쾌적함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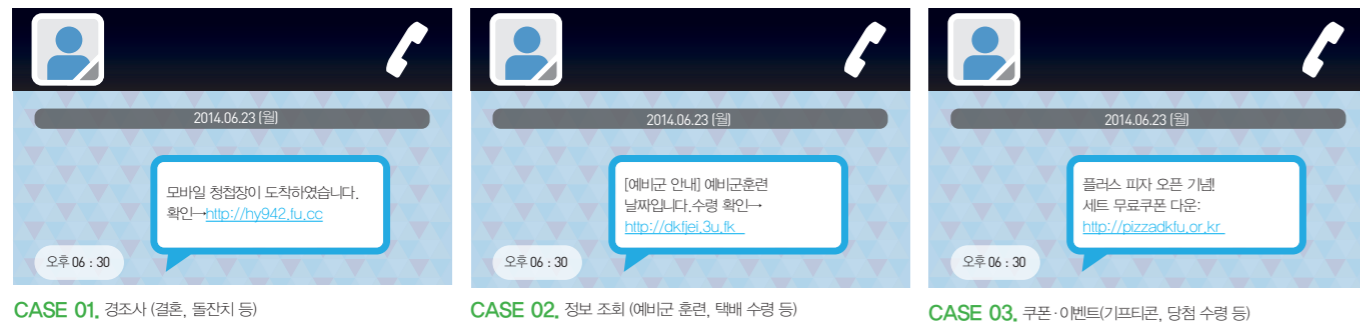
## 모바일 소매치기, 스미싱(Smishing) 예방법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생활의 편의는 높아졌지만 그와 비례해서 개인 사용자의 보안은 점차 취약해져 가고 있다. 보안의 취약화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사례는 '스미싱(Smishing)'을 들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뜻하는 SMS와 개인 정보를 악용한 사기를 뜻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알려진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URL에 접속하면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한다. 갈수록 피해사례가 늘고 있고 수법 또한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스미싱. 어떤 종류가 있으며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 알아야 안 당한다! 스미싱의 대표적 사례

스미싱의 기본적인 구조는 '간단한 텍스트+URL'이며 이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스미싱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조사, 자극적인 콘텐츠(성인 동영상), 정보 조회(예비군 훈련, 택배 수령), 쿠폰·이벤트(기프트콘, 당첨 수령) 공공기관 사칭(경찰청, 법원) 등이 있다. 아래와 같이 주로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 URL 연결을 유도하는 안내형 문자가 주류를 이룬다.

### Tip. 스미싱의 대표적인 유형



CASE 01. 경조사 (결혼, 돌잔치 등)

CASE 02. 정보 조회 (예비군 훈련, 택배 수령 등)

CASE 03. 쿠폰·이벤트(기프트콘, 당첨 수령 등)

### 스미싱의 피해 양상과 방지 방법

사용자가 URL을 클릭하는 순간, 내 스마트폰에는 악성코드가 설치되며 범죄자에게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이후 범죄자는 내 휴대폰 번호로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를 구입할 수 있다. 피해액은 소액결제 제한 금액인 3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 Tip. 스미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 1. URL 연결 차단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URL 연결 차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설정 혹은 메시지 설정에 들어가서 URL 연결 설정을 해제해주면 실수로 URL을 클릭해도 웹사이트로 연결되지 않는다.



#### 2. 보안 설정 강화

스미싱은 인증받지 않은 앱을 사용자 임의로 설치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설치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서 '보안' → '알 수 없는 소스' 항목 체크를 해제해주면 된다. 또한 인증받지 않은 앱마켓 즉, 블랙마켓이나 인터넷상에 떠도는 앱 파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 3. 특정 앱 활용

스미싱에 특화된 차단 앱들을 사용하는 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크게 ① 악성코드를 차단 및 제거하는 백신 앱과 ② 스미싱을 차단하는 앱 두 가지가 있다. 전자 ①의 대표적인 백신 앱으로는 '아베스트 모바일 백신', 'V3 Mobile Plus 2.0'이 있고 ② 차단 앱으로는 '스미싱 가드', '후후' 등이 있다.

#### 4. 소액결제 서비스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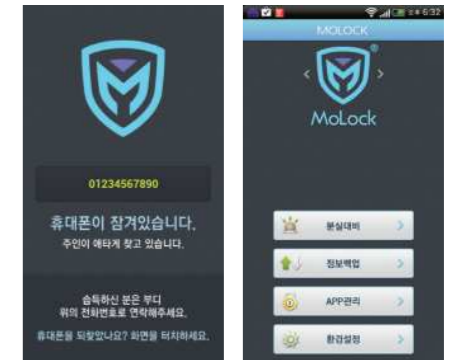
결제가 이뤄지는 소액결제 서비스 자체를 제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통신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단 혹은 금액 한도 설정이 가능하며 상담원 연결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 내 스마트폰을 지켜주는 철통보안 앱

스미싱 외에도 내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개인 정보를 활용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앱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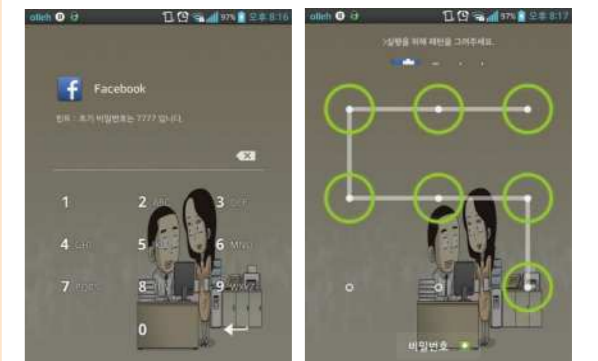
#### 추천App 01. 분실방지 기능이 뛰어난 "모락"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단말기 내 개인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분실방지 앱인 "모락"을 설치하면 분실된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내부 데이터를 원격 백업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전면 카메라로 습득자의 얼굴을 몰래 촬영 및 전송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앱을 삭제하거나 전화 기능을 쓸 수 없게 조치할 수도 있다.



#### 추천App 02. 이중 잠금 기능, "스마트 앱 프로텍터"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1차 요소는 비밀번호 혹은 패턴을 활용한 잠금화면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특정 앱까지 다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게 잠글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앱이 "스마트 앱 프로텍터"다. 숫자, 문자, 패턴, 제스처 등으로 특정 앱을 잠글 수 있으며 화면 꺼짐, 회전 방지, 특정 시간대에만 잠금 등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다.



연둣빛 신록으로 빛나는 인제 아침가리골

# 이 땅의 마지막 오지에 숨어들어 힐링하다

아침가리골은 조선시대 예언서인 정감록에 기록된 최후의 은신처다. 두메산골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졌기에 지금껏 원시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예전에는 아침가리골에 들어서려면 무조건 바윗단을 적셔야 했지만, 이제는 쇠다리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곡 안쪽으로 들어설 수 있다. 쇠다리 너머 울창한 숲으로 들어서면 산들바람이 후텁지근한 기운을 순식간에 흘려가 버린다. 아침가리골 입구에서 길을 멈추고 잠시 숲 속 공기를 마셔보라. 문명과 단절된 채 자연인으로서의 나와 조우하게 될 것이다.



## 남녘땅 피안의 세계에서 심을 즐긴다

아침가리골은 조선시대 예언서인 정감록에 기록된 '삼둔사가리' 중 하나다. 삼둔사가리에서 '둔'은 홍천군 내면 '살둔', '월둔', '달둔', '가리'는 인제군 기린면의 '아침가리'를 포함 '적가리', '연가리' 등지를 말한다. 그중에서도 아침가리는 그 옛날 포악한 군주와 전쟁 같은 난리를 피해 강원도 두메산골의 은밀한 계곡으로 숨어든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피안의 세계였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그곳에는 바다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보석처럼 빛나는 '소'와 '담'이 펼쳐지는 남녘땅 최후의 오지가 숨겨져 있다.

계곡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숲으로 가려져있다 보니 아침가리 초입에는 나무 그늘 아래 텐트를 치고 신선놀음에 빠진 사람들도 보인다. 아침가리골 입구는 드나들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텐트나 그늘막을 치고 낮잠에 빠지거나 천렵을 즐기는 가족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힐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이다.

## 가장 시원한 여름휴가를 맞볼 수 있는 곳

아침가리골은 여전히 때문지 않은 원시의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르는 길 곳곳에 포진한 바위 무더기와 산처럼 솟은 기암 그리고 계곡 양쪽을 빼곡히 메우고 있는 우거진 숲은 인간의 발길을 거부한다. 그나마 드문드문 이어지는 숲길도 끊어지기 일쑤고, 무릎 위까지 빠지는 계곡물을 건너야 하는 것은 다반사. 뿐만 아니라 계곡 바닥에 깔린 돌들은 물이끼가 끼여 발을 디딜 때도 조심스럽다. 일부러 구입할 필요는 없지만 알파인 스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챙겨갈 것을 권한다. 길은 모습을 드러내고 감추기를 반복하지만 아침가리에서 길이 없다고 투덜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숲과 계곡, 자연만이 있을 뿐 애초에 그곳에 '길' 같은 건 없기 때문이다. 돌단풍이 휘감은 바위를 기어오르고, 제법 물살이 센 개울을 건너는 동안 한여름 더위는 저만치 물러나 있을 것이다.

### Tip.

#### “등산화와 등산복은 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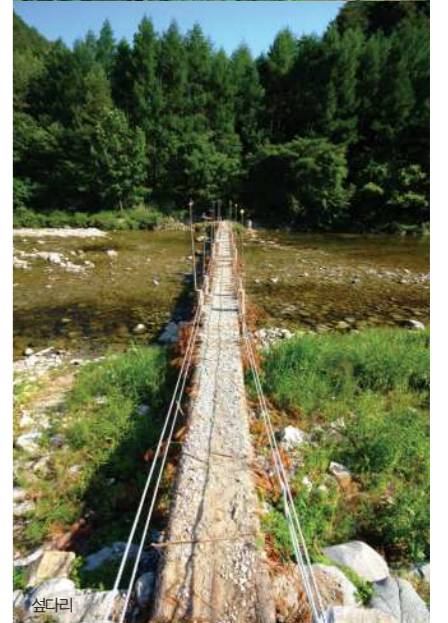
계곡에서 폭우 시에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히 높은 지대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물의 깊이가 깊지 않더라도 발이 빠지면 급류로 인해 성인 남성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어 위험하다.

그저 계곡 입구에서 발만 담그다 돌아올 요량이 아니라면 복장과 신발을 단단히 준비할 것을 권한다. 통기성이 좋고 건조가 빠른 옷과 등산화를 준비해야 한다. 해가 짧은 계곡의 특성상 왕복 7~8시간이 넘는 구간을 오가야 하기 때문. 또한 계곡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므로 도시락이나 빵, 식수 등 먹거리도 준비해야 한다. 종착지인 조경동교까지 직선거리로는 3km에 불과하지만 계곡이 굽이쳐 있고, 쉬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두 배도 넘는 거리를 올라가야 한다. 보통 올라갈 때 4시간, 내려올 때 3시간이 소요된다.

· 주소\_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657-5 · 전화\_ 033-460-2170 (인제군 관광정보센터)



전나무숲



쇠다리



돌단풍

## 웰크론그룹, 베트남에 신규법인 '다이로이글로벌' 설립



웰크론그룹이 베트남 신규법인 '다이로이글로벌(DAI LOI GLOBAL)'을 설립하고 등록을 완료했다. 베트남어로 큰 수익(Big Profit)을 뜻하는 다이로이글로벌은 베트남 주요 기업 활동의 중심지인 호찌민 시 1군에 자리 잡고 있다. 다이로이글로벌의 사업분야는 매니지먼트 컨설팅을 비롯해 무역·유통·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이다. 웰크론그룹에서 생산하는 극세사 생활용품과 위생용품을 수입해 베트남 현지에 유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웰크론강원과 웰크론한텍이 베트남에서 플랜트 사업과 발전사업 등을 수주하면 현지 대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웰크론글로벌비나 6월 매출 100만 불 첫 돌파



웰크론글로벌비나의 6월 매출이 처음으로 100만 불을 돌파했다. 웰크론글로벌비나는 웰크론그룹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2년 9월 베트남 호찌민시 룡탄공단에 설립한 첫 해외법인이다. 현재 300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2,400만 장의 클리너와 10만 채의 침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웰크론글로벌비나는 공장 설립 이후 꾸준히 생산량을 늘려 왔으며 지난 달부터 생산설비를 풀가동해 처음으로 월 매출 100만 불을 돌파했다. 웰크론글로벌비나는 앞으로 방탄복·위생용품의 생산기지와 해외 판매 법인 역할뿐만 아니라 웰크론강원의 산업용 보일러 및 발전사업과 웰크론한텍 주력사업인 식음료 설비·에너지 절감 설비·해수 담수설비·EPC

사업 추진 등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설 예정이다.

## 웰크론 KBS '스카우트', '희망기업열전' 방송



웰크론이 'KBS 스카우트'와 '희망기업열전'에 출연했다.

웰크론은 지난 3월 2일 KBS1 TV에서 방영하는 '스카우트'를 통해 기능성 침구 브랜드 '세사리빙(SESA Living)'의 침구 디자이너를 공개 채용했다. '스카우트'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합을 벌여 최종 1인에게 정규직 입

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웰크론은 이번 방송을 통해 2명의 신규 디자이너를 채용했다.

이어 4월 18일에는 KBS 2TV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 '희망기업열전'에 출연해 베트남 시장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웰크론 직원들의 모습을 담았다. 연구소, 상품기획팀, 영업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베트남의 기후적 특성을 반영한 제품을 논의하고, 직접 베트남에 찾아가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폈다.

## 웰크론 방검부력조끼,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개발 완료

웰크론이 가볍고 성능이 향상된 방검부력조끼 개발을 완료했다. 웰크론의 방검부력조끼는 지난해 5월 해양경찰 등 국내 방호복 시장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 겹이나 죽창 등으로 무장한 중국 어선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검복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웰크론이 새롭게 개발한 방검부력조끼는 중량은 낮추고 방검 성능은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3.4kg이었던 방검복을 3.0kg까지 중량을 낮추면서도 막을 수 있는 칼날의 종류도 기존의 양날검(S1)에서, 한날검(P), 송곳날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방염성능과 부력성능, 방수성능도 강화시켰다. 화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염 테스트를 실시해 현재의 소방복 기준까지 맞췄으며, 부력성능은 기존 성인 남성의 기준인 70N(뉴턴)에서 100N까지 높였다. 작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분 침투에 의한 무게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외피 방수 기능도 갖췄다.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이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처가 구매 의사를 미리 밝히고 기술 개발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판매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웰크론강원, 베트남 마텍보일러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MOA 체결



웰크론강원이 지난 4월 베트남 마텍보일러와 글로벌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협력을 위한 MOA를 체결했다. 바이오매스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의 선점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에 따라 웰크론강원은 중국 및 동남아 소각로 및 중소형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의 사업 수행을, 마텍보일러는 동남아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의 영업 및 일부 설비 제작을 담당하게 된다. 웰크론강원은 울초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웰크론강원은 축적된 기존 플랜트 설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소각로 발전 시장을 겨냥할 계획이다.

## 웰크론강원, GS건설서 75억 황회수설비 수주



웰크론강원이 지난 4월 JGCS 컨소시엄과 약 75억 원 규모의 황회수설비(SRU)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작년 매출액 대비 약 14.8%에 해당한다. 이번에 계약한 황회수설비는 베트남 응이손(Nghi Son) 지역에 건설되는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공사(NSRP)에 공급될 예정이며, 내년 4월까지 황회수설비 37기의 납품을 완료해 5월 경부터 현장에서 본격적인 설치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웰크론강원은 베트남 현지에서 플랜트 전문 엔지니어를 파견해 현장 설치와 시운전 전반에 대한 감리도 진행한다. NSRP 프로젝트는 베트남 타인호아(Thanh Hoa)주 응이손 지역에서 하루 평균 20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베트남 지역 최대 정유 프로젝트이자 두 번째 정유공장이다. 웰크론강원은 이번 계약 체결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황회수설비를 공급한다.



## 웰크론강원, 멕시코 국영기업 'PEMEX' 벤더 자격 획득

웰크론강원이 지난 5월 멕시코 국영석유기업인 'PEMEX'사의 벤더 등록을 완료했다. 벤더 등록이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발주처에 대해 수수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번 벤더 등록으로 웰크론강원은 총 13개 해외기업의 벤더 자격을 보유하게 됐다. PEMEX사는 멕시코의 유전개발을 담당하는 멕시코 최대 국영기업으로 올해 34억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의 초저유황 디젤 프로젝트 입찰을 앞두고 있다. 웰크론강원도 이번 벤더 등록에 성공함으로써 PEMEX사를 통해 황화수소설비, 산업용 보일러 등의 신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웰크론강원, 66억 규모 제주 SRF 생산시설 터키 수주

웰크론강원이 제주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시설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웰크론강원은 지난 5월 19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수목적법인인 ㈜에스알이투로부터 66억 원 규모의 제주 SRF 생산시설 구축 사업을 설계·구매·시공(EPC) 일괄도급 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 이번 수주로 웰크론강원은 올해 11월까지 제주시 해안동에 약 11,412㎡ 규모의 SRF 생산시설을 세우게 된다. 이 시설은 제주시 등지에서 발생하는 일 평균 250톤의 산업 및 생활폐기물을 회수해 파쇄·선별·탈취·압축과정을 거쳐 약 1일 220톤의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다. ㈜에스알이투는 생산된 고형연료를 국내 화력발전소와 산업시설에 발전 및 난방용 열원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고형연료 소각로 시설 확충을 통해 스팀 판매나 전력 판매에 활용할 수 있어 제주도 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웰크론강원, 투모로에너지 인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본격화

웰크론강원이 지난달 12일 폐기물 처리업체인 투모로에너지의 지분 100%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투모로에너지는 1999년에 설립된 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체로, 4,725㎡(1,430평) 규모의 소각시설에서 하루 48톤의 폐기물 소각 및 300톤의 슬러지 처리 용량을 갖춘 중견 소각장 운영업체다. 현재 천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 및 생활 폐기물을 주로 소각해 처리하고 있다. 이번 투모로에너지 인수는 웰크론강원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소각열을 활용한 스팀생산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투모로에너지 지분 인수를 위해 웰크론강원은 약 48억의 자기자금을 투자했으며, 이로써 지분 100%를 취득하게 돼 투모로에너지를 주요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웰크론강원은 기존에 투모로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던 생활 및 산업폐기물 소각장 운영사업뿐만 아니라, 소각 후 버려지던 폐열을 재활용하기 위해 스팀보일러를 증설해서 인근 산업 단지에 스팀을 공급하는 2차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웰크론한텍, 사우디·두바이 해외법인 본격 가동



웰크론한텍의 해외 법인이 본격 가동돼 해외 공략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웰크론한텍은 지난해 말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한 SAUDI WELCRON 조인트벤처와 지난 3월 두바이에 설립한 'SWC' 법인의 설립이 최종 승인돼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웰크론한텍의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 직접 영업을 통한 현지 대응체제가 가능해졌다. 두 법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동의 발전사업 및 담수 플랜트 영업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웰크론그룹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남양유업 나주공장 동결건조 커피 자동화 생산라인 준공



웰크론한텍이 첨단 설비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남양유업의 커피 전용공장을 전남 나주에 완공했다. 남양유업 커피 전용공장은 전남 나주 금천면에 있는 10만 1063㎡ 부지에 연면적 2만 6061㎡(8,000여평) 규모로 웰크론한텍은 대형 커피 제조설비를 탄카방식으로 나주 전용공장에 시공했다. 이번 설비 공급으로 남양유업은 영하 45℃의 진공상태에서 신속한 동결건조를 통해 커피 본연의 맛과 풍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동결건조설비를 갖췄다. 연간 동결건조 커피 생산능력은 국내 토종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7200톤이다. 이는 커피믹스 50억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웰크론한텍은 2년 5개월 만에 커피 설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추가 설비 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웰크론한텍, 신재생에너지융합 원천기술 개발자로 선정

웰크론한텍이 신재생에너지융합 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기술의 개발자로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웰크론한텍은 '미활용 유지 성분을 활용한 바이오디젤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과 사업화 가능성을 제시했고, 지난 4월 평가위원회 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원천기술 개발자로 최종 결정됐다. 웰크론한텍은 2017년 5월까지 연간 3,000kL 규모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 설비를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에는 총 45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 및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된다. 바이오디젤 플랜트 수주에 따른 실적 향상과 신 시장 본격 진입 및 해외 바이오디젤 사업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웰크론한텍, 설계·감리 법인 '동원건축사사무소' 설립

웰크론한텍이 설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감리 법인인 동원건축사사무소를 설립했다. 동원건축사 사무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신규 설립됐다. 지금까지 삼전동 신이 사옥, 등촌동 신한복지 사옥, SPC 양재사옥, 장교동 지하상가 리모델링, 여의도동 호텔 증축, 당산동 물류창고 등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설립 6개월 만에 6억 원의 수수액을 달성했다.

동원건축사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건축설계·건축감리 업무를 수주해 기계, 전기, 소방 등 분야별 설계업무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웰크론한텍의 플랜트 기술팀·EPC사업부에 기계설계 및 시공을 의뢰해 설계·구매·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 예지미인, '웰그루' 화장지 출시



웰크론헬스케어의 한방 생리대 브랜드 예지미인이 100% 천연펄프 화장지 '웰그루'를 새롭게 출시했다. '웰그루' 화장지는 최근 소비자 화장지 선호 트렌드에 맞게 100% 천연펄프를 사용한 3겹의 도톰한 제품으로, 피부에 부드럽고 먼지가 적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출시된 품목은 25x30롤(19,000원), 35x12롤(11,000원) 2종과 200x3팩 대용량의 미용티슈(6,500원) 등 총 세계품목이다. 예지미인은 "최근 소비자들이 위생용품 구매할 때 '안전성'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무형광, 무색소, 무향의 '3無' 처리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Q. 사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작년 남편이 웰크론으로 입사하게 되어 처음으로 <웰크론인>을 받아 보았습니다. 평소 잘 몰랐던 웰크론이 어떤 회사이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웰크론그룹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예고하는 첫 해외법인인 글로벌비나 소개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직원들과 정으로 소통하는 웰크론 임직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가 된다면 웰크론 직원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미덕** 님

\* <웰크론인> 5호의 유익한 정보와 소식 잘 받아 보았습니다. 사보에 등장하는 직원들의 밝은 모습만 큼이나 기본 좋게 성장하는 웰크론그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웰크론 소식부터 사람 냄새나는 직원들 이야기, 그리고 유익한 정보까지 이야기거리 풍성한 <웰크론인>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 부천시 원마구 중동 **김미경** 님

\* 웰크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보았습니다. 침구 브랜드로만 알고 있던 웰크론이 폐수처리 설비에 방탄복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니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회사인 것 같네요. 웰크론 그룹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포인트를 짚어주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라북도 전주시 **고지은** 님

빨간★ 우체통



Quiz

Quiz 정답 및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 중 총 10분을 추첨하여 8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드립니다.



웰크론헬스케어에서 '예지미인', '예지천사'에 이어 새롭게 출시한 프리미엄 한방 성인용 기저귀 브랜드는 '□□□□'다.

편집 후기



지난 2011년 가을호로 첫인사를 드린 <웰크론인>이 벌써 여섯 번째 기록을 담았습니다. 이번 호도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했는데,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웰크론인>을 만들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회사가 커가고 있는 것도 보이고,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인사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최고의 순간을 카메라 앵글에 담다 보니 행복하고 자부심 가득한 우리 직원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 보람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웰크론그룹은 더 커지겠지요. 그럴수록 찾아갈 곳도, 만나볼 인물도 많아질 겁니다. 우리 웰크론그룹을 공급해하는 독자들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웰크론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웰크론그룹 기획조정실 홍보IR팀(pr@welcron.com)

Welcron Campaign



“우리는 웰크론 지킴이입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안 위협으로  
기업의 소중한 정보자산이  
시시각각 유출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직원의 부주의, 의도적 정보 유출 등으로  
기업이 심각한 손실과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은  
우리 모두 정보 유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사내 보안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모두가 함께 애써서 일구어낸 것들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사내 보안 정책을 준수합시다.

책임감 있는 주인의식과 각별한 보안의식을 가진

우리는 웰크론 지킴이입니다

S·E·S·A Living  
Good Sleeping Science



영국 알러지 협회  
품질 인증



대한 아토피 협회  
품질 인증



ChosunMedia  
조선일보 주최

2014 침구 홈패션 부문

**품질만족大賞**  
수 상



한국경제신문 주최

2014 친환경 브랜드 부문

**프리미엄브랜드**  
大賞 수상

알러지방지 기능성 침구

**세사리빙**

고객 여러분께서  
주신 사랑,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리점 개설문의

02)2107-6776/6773

www.sesaliving.com